

조선대-광주시의회 정책 개발 업무협약



조선대(총장 서재홍·왼쪽)가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와 손잡고 다양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이날 협약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조선대의 현정실습 및 산업체 인턴사업 운영에 협력하고 조선대는 시의회의 정책개발, 직무능력 향상, 연구역량 강화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조선대 제공>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알리기 팸 투어



진도군(군수 이동진)은 최근 여행블로그 기자단과 외국인 단체 매니저 등 35명을 초청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3월 30~4월 2일)를 알리기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진도군 제공>

신안군 압해읍 '저녁노을 미술관' 개관식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에서 군민 등 300여명과 '저녁노을 미술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곳에는 우암 박용규 화백 작품 126점 등 총 211점이 전시된다. <신안군 제공>

강진고 총동문화 동문가족 걷기대회 행사



강진고등학교(교장 박광춘) 총동문화는 개교 33주년을 맞아 최근 가우도 해안둘레길인 '가우도 함께해(海)길'에서 동문가족 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시인으로 소설가로... 반세기 글쓰기 작업 갈무리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최 건 시인 산문집 펴내

5·18때 취재수첩 유네스코 유산 등재

“캐리본 문화적 성취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해왔던 글쓰기 작업의 연장선에서 갈무리를 하고 싶었다.”

순천 출신 최건(75) 시인이 '겨울 나무가 던지는 그림자'를 펴냈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노스텔지어 노트·북'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에는 그동안 그가 써온 시, 수필, 산문, 소설, 르포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바바리코트 차림의 최 시인은 긴 끈자머리와 등근 뺨모자가 인상적이다. 책은 저자 최건(75) 시인이 '겨울 나무가 던지는 그림자'를 펴냈다. '처음이자 마지막의 노스텔지어 노트·북'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에는 그동안 그가 써온 시, 수필, 산문, 소설, 르포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사화인으로서의 출발은 언론사에서 시작됐다. 64년 목포일보사 기자로 언론계에 몸을 담았다. 얼마 후 동아일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대의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목포 주재기자로 있을 때 '광주의 오월'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목포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목포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는 "5·18민주화 운동의 첫 발화점이 전남대 정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목포에서도 5월 초에 그 같은 시위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 "80년 5월초에 문익환목사(1918~1994)가 목포에 내려와 기독교 인사를 만나 시민투쟁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사람의 비밀협약 장소에 증인자격으로 있었다고 한다. 최 시인은 목포에서도 광주 못지않게 민주화 열기가 팽발하게 불타올랐다고 회

했다." 그의 학창시절은 전학의 연속이었다. 초·중등 학교를 여섯 곳이나 거칠 만큼 이사가 잦았다. 59년 고려대 국문과에 입학했지만 생각만큼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경제적 이유로 제적과 복학을 거듭해야 했고 시대와도 불화했다.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은 언론사에서 시작됐다. 64년 목포일보사 기자로 언론계에 몸을 담았다. 얼마 후 동아일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대의 격랑에 휩싸이게 된다.

“목포 주재기자로 있을 때 ‘광주의 오월’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목포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목포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는 “5·18민주화 운동의 첫 발화점이 전남대 정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목포에서도 5월 초에 그 같은 시위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 “80년 5월초에 문익환목사(1918~1994)가 목포에 내려와 기독교 인사를 만나 시민투쟁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사람의 비밀협약 장소에 증인자격으로 있었다고 한다. 최 시인은 목포에서도 광주 못지않게 민주화 열기가 팽발하게 불타올랐다고 회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최 건 시인은 그동안 해왔던 문학을 갈무리 하기 위해 '겨울 나무가 던지는 그림자'를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고한다. 당시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시위와 투쟁 상황을 취재한 수첩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80년 11월 군사정권의 언론통제하에 동아일보사에서 해직을 당했다. 근래에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편하게 하거나 왜곡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불이 쏘인다.”

해직 이후 그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사

업에도 손을 댔지만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런 즈음 읽고 있었던 문학의 열정이 되살아났다. 1983년 '시문학'에 시가 추천돼 시인으로 등단한다. 그러나 그는 시, 소설, 산문 장르를 가리지 않고 글을 쓴다.

추천사를 쓴 범대순 시인은 “이런 산문집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인이며 소설가로서의 다하지 못한 그의 생애가 아

쉬움을 준다”며 의미를 부여한다. 현재 그는 전북 장수에 거주한다.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던 곳인데 2009년 그곳이 '마지막 거처'라 생각하고 아예 귀촌을 결심했다.

지금까지 세계 70여 개국을 다닐 만큼 여행을 좋아한다는 그는 “가는 곳이 길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칠순 노 시인의 마지막 인생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반동의 시대, 통일의 꿈 이어갈 리더십 절실”

‘김대중을 다시 부르고 있다’ 평론집 낸 최경환 DJ센터 공보실장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DJ센터 공보실장이 '김대중을 다시 부르고 있다'(삼인출판사)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김대중 대통령 서거 후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은 남북관계, 정치평론집으로 '김대중 리더십'(2010), '배움의 시간'(2012)에 이은 세 번째 저서다.

책에는 지난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 유언처럼 남겼던 유언, 즉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방안,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연합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전두환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1981년 '학림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던 저자는 남영

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력,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인 저자는 최근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하와 왜곡, 이에 편승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한다.

저자는 “반동과 복고의 시대,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다시 세우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꿈을 이어갈 리더십의 복원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한편 최 공보실장은 연세대 객원교수를 거쳐 올 3월부터는 전남대 객원교수로, 전남대에 최초로 개설된 '김대중의 사상과



리더십'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휴대전화 없애니 집중도 쑥~욱 호남대 언어치료학과 'NO 스마트폰' 수업

호남대 언어치료학과(학과장 유재연)는 교수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 시작 직후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NO 스마트폰, YES 스마트' 수업(사진)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와 학생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학생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NO 스마트폰' 수업은, 수업시작 전 학생들이 강의실 입구에 설치된 휴대전화 보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꺼서 보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언어치료학과 박진서 학생회장은 “휴대전화 없는 수업 만들기를 통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업 분위기도 더욱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과에서는 수업 시간 뿐만 아니라 건전MT 및 공식 행사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병원 NH무역 대표이사 전남대 객원교수 임용

나주출신으로 NH무역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원(61)씨가 최근 전남대 객원교수가 됐다. 김 대표이사는 올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공학부 객원교수(조교수대우)로 신규 임용됐다.

전남대는 김 대표가 현장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학생들에게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전남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과 수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전할 계획이다. 지난 1978년 농협에 입사한 김 대표는 남평농협 조합장



을 3차례 역임하고, 2009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장에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하지만 뿌듯한 마음으로 소신껏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이옥근·배숙자씨 장남 기현(체널 A 카메라기자)군 이병열·김목자씨 차녀 선화양=15일(토) 오후 2시 10분 광주수비스웨딩컨벤션 1층 로즈홀.
- ▲김준석(서교건설 대표)·김순옥(해주식당 대표)씨 장남 익진(고흥군청)군 정정해씨 장녀 김태희양=15일(토) 낮 12시 고흥 하나웨딩홀.
- ▲김정수(화순 동백농협 복면지점장)·이옥희씨 장남 성훈군 금영귀씨 장녀 하지형양=15일(토) 낮 12시 광주 임동동당.
- ▲장만원·조은희씨 차남 기성군 김갑순(옥션코리아 대표)·이미순씨 장녀 소미양=15일(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킨라티움. 당일 오전 7시30분 광주비엔날레주자장 전서비스 출발.

동창동문회

- ▲재광 순천 매산고등학교 정기모

임=18일(화) 오후 7시 광주 북구 우신동 일천서 힐집 010-3601-7701.

종친회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회소분원 정기총회=18일(화) 오전 11시 화순군민회관 대강당 011-629-0980.
-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무안분원 정기총회=18일(화) 오전 11시 무안을 샘물식당 011-475-4989.
- ▲전주 강씨(회장 강원구) 광주·전남총회·청년회·여성회 정기총회=15일(토) 오전 11시 광주향교 2층 010-2378-0070.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상담·신고전화 운영=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와 방임을 말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과 관련된 상담 및 신고전화 1577-1391은 24시간 운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상담 및 미혼초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도 단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 및 속식보호 062-232-1313.
-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장애아 및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 모집**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전문가초청공모강좌 강사 이문인 다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금연 일회일당 22일 오전 10시30분~12시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062-526-3370.
- ▲디자인 슝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슝 큐비지인 학원. 국제공인

- 아로마테라피스트가 직접 강의. 재료비·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www.ihanmaru.co.kr)
- ▲(사)장애인먼저! 실천광주운동본부 자원봉사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배호 가족모임 광주지부(지부장 정종원)=불새출의 가수 배호가족 남아 회원 수시모집 010-7520-1112.
-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불교합창단 장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방담 062-385-1336.
- ▲남구 방림1동 세미는 협의회=자원봉사자 모집 수시 모집(자녀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 부음**
- ▲신계우(전 완도·담양군수)씨 별

- 세 재식(호남신학대 교수)·귀식(전남예금보험공사 과장)·현숙·지숙 씨 부친상 김상남(베스트코리아 회장)·승근(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최영본부 자원봉사자=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누구나 신청가능.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보조, 장애인 인식개선캠페인 등. 062-511-0030, 514-2929.
- ▲배호 가족모임 광주지부(지부장 정종원)=불새출의 가수 배호가족 남아 회원 수시모집 010-7520-1112.
-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합창단=불교합창단 장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방담 062-385-1336.
- ▲남구 방림1동 세미는 협의회=자원봉사자 모집 수시 모집(자녀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 부음**
- ▲신계우(전 완도·담양군수)씨 별

- ▲신길순씨 별세 상호(주 광진레미콘)·순례·순남·지민·정미씨 부친상 오은정·박윤정씨 시부상 이대현·진관호·김중환·홍국진·홍부상=발인 1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 ▲황병상씨 별세 지규·은하·이승훈씨 부친상 이춘애씨 시부상 전현종씨 부부상=발인 14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尙가 故人의 冥福을 빎니다 弔

101호 故문영식 님(남/42세) 兄: 문영훈, 영삼, 영수 子/子婦: 이진수, 영수/류운성 女: 이무라 •호 실: 101호 •발 인: 3월 1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이인영 님(남/65세) 子/子婦: 이진수, 영수/류운성 女: 이무라 •호 실: 102호 •발 인: 3월 1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401호 故정봉근 님(남/86세) 子/子婦: 정순환/박영순, 주환/홍영숙, 환/오경심 孫: 정지영 喪主人: 김순이 孫: 정상호, 상원, 상일, 상하, 미진, 상경 •호 실: 401호 •발 인: 3월 14일 •장 지: 감천 병영선영 •연락처: 227-4383	201호 故정광섭 님(남/77세) 子/子婦: 정상호/이영인, 재철/최명진 女: 정재훈/이귀서, 경애/손태성 喪主人: 손경만 •호 실: 201호 •발 인: 3월 14일 •장 지: 함평 월야 •연락처: 227-4381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